

Focus Group에 의한 유구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주민의식조사연구

이진현(공주대학교)

유구천 환경계획 『맑고 깨끗한 유구천 만들기』 사업을 위한 주민 환경의식조사의 일환으로 유구지역의 주민들의 대표인 이장들을 중심으로 포커스 그룹 토론을 통해 주민들이 생각하는 유구천의 환경상태와 앞으로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과거의 유구천과 현재의 유구천의 상태를 파악하며, 미래의 유구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파악하는데 있다.

포커스그룹 토론은 유구읍사무소의 협조로 정식 공문을 보낸 후 2005년 12월 9일 약 2시간 30분 동안 15명의 이장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3명의 연구 진행자와 6명의 연구보조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녹취를 한 후 연구 주제별로 묶어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과거의 유구천의 실태

과거의 유구천에서는 냇가에서 목욕하고, 물놀이하고, 고기 잡고, 빨래하고, 김장철에는 배추를 씻을 수 있을 정도로 맑고 깨끗하였다.

물의 수량은 적당할 정도로 많았으며, 메기, 새우, 징계미, 다슬기, 송사리, 붕어, 종태미, 참게, 뱀장어, 모래무치, 빠가사리 등이 특히 많아서 손으로 물고기를 잡을 정도이었다. 또한 반딧불이도 굉장히 많았다.

유구천의 물을 이용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였으며, 물레방아 간에서도 사용하였고, 식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유구천에서 잡은 깨끗한 물고기로 끓인 어죽이 맛있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유구천과 관련된 전통문화는 탐제, 장승제, 산제 등을 각 마을마다 지내왔다. 그 외에 상죽계라는 마을 공동체가 있어서 초상날 때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었으며, 다른 지역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로 1년에 한번씩은 모여서 친목을 다시는 향우회가 있다.

2. 현재의 유구천의 실태

현재의 유구천은 다리 밑이나 물이 깨끗한 지역은 여름에 휴식처로서 활용이 되고 있으나 유구 지역에 사는 사람은 물이 더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잘 찾아가지 않

고 타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이 쉬었다 간다고 한다. 또한 빨래를 하는 곳으로 쓰이기도 한다.

현재의 유구천의 수량은 세동리, 추계2리, 덕곡리, 만천1리 등은 줄지 않았으나, 신달리, 녹천2리, 백교2리 등은 수량이 감소하여서 양수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장마철이 아닌 경우는 물이 말라 있다고 한다.

유구천 오염 원인은 합성세제의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정화조 관리의 문제와 축산물 오폐수 처리의 문제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에 농약의 사용이나 공장 폐수의 문제, 오리의 방목 등이 유구천 오염을 가속화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구천 오염은 장마가 지고 난 후 물이 빠지면서 개울가에 있는 버드나무, 후등, 풀 등이 있어서 그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토사가 하천에 쌓이면서 더욱 더러어진다고 한다. 현재 유구천의 오염정도는 10년전부터 기형물고기가 나타난 점으로 보아 하천이 많이 오염된 상태를 추측할 수 있으며, 특히 하류 쪽에서 잡는 물고기는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유구천 생태계는 징계미, 고동, 가재, 빠가사리 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반딧불이, 잠자리종류도 많이 감소하였다. 오리(청둥오리), 원앙 등은 가끔씩 나타나, 매, 고마니, 뜸북이, 따오기, 기러기 등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 비둘기, 날다람쥐, 산짐승, 너구리 등 천적이 없는 동물들은 증가하였다. 양서류 종류 중에 황소개구리는 많아졌으나 비단 개구리는 없어졌다.

식물은 억새풀은 많아졌으나, 빛나무, 물봉선화 등은 감소하였다.

유구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활동은 주민차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농약 적게 쓰기를 실천하고 있고, 학생차원에서는 쓰레기 줍기, 생태조사 활동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고 있다.

마을단위 차원에서는 정기적이 대청소와 폐품 수집, 농약 및 페비닐 분리수거 등을 하고 있으며, 주민 자치적으로 환경위원을 두고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읍 단위 차원에서는 읍에서 지정된 날에 각 마을 단위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3. 미래의 유구천에 대한 기대

미래의 유구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현재 유구지역에 있는 직물공장을 활용하여, 직조를 상품화 시켜서 관광 자원과 연결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사슴 목장이 많으니까 녹용을 상품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식품으로는 표고버섯을 상품화 시킬 수 있으며, 유구 한우를 '토바우 한우'로 특산화 시켜서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영 2리는 약수물을 이용한 된장공장을 설립하고, 이팝나무 축제를 열어서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구천이 맑고 깨끗한 하천이 된다면 '박 축제' 등과 연계해서 휴양지로서 활용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녹천 3리는 진달래 꽃이 많이 피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관리하여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구계 1리는 '석수랜드'라는 놀이시설을 활용하여 조성을 하면 경제성 있는 상품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물 환경 차원에서 유구천에 거는 기대는 유구읍 곳곳에 있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보'를 '돌로 된 보' 만들어서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 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보' 때문에 고여 있는 물이 썩게 되는데, 이를 위해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유구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기대는 유구읍 시내에 있는 하상주차장 근처에서부터 만천리 다리까지를 체육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곳에 빨래터도 만들고, 배도 띄울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구계 1리는 산악도로의 입지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면 좋겠다.

유구천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앞으로의 활동은 주민차원에서 저농약 사용으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마을단위에서는 저농약 사용에 대한 홍보, 쓰레기 줍기,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세탁세제 및 부엌, 목욕세제 사용 감소에 대한 운동을 통해 주민의 환경의식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읍단위 및 정부차원에서는 정기적인 하천정비 사업과 정화조 관리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현재의 상수원을 상류로 이전하고, 축산 농사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각 마을마다 소규모의 공동 정화시설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기업차원의 대책은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 활동, 예를 들면 정기적인 쓰레기 줍기, 환경미화 활동 등으로 기업의 신뢰성과 친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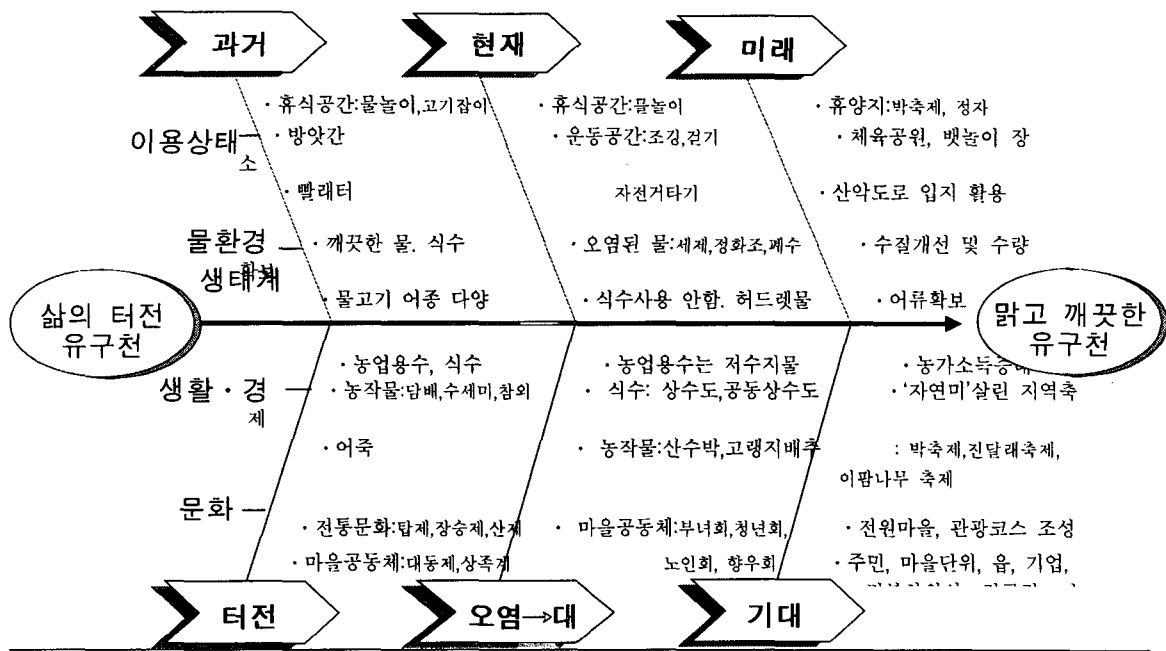


그림 8. 유구천 과거 · 현재 · 미래에 대한 조망

4. 제언

유구천 주민 Focus Group 조사를 토대로 『맑고 깨끗한 유구천 만들기』를 위한 제언 하고자 한다.

1) 주민자치조직 활성화를 통한 환경의식 강화

유구천 오염 주요 원인은 생활폐수, 정화조 관리의 소홀, 축산 오폐수, 농약 등으로 제시되었다. 생활폐수는 샴푸,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므로 주민들의 환경의식 강화를 위해 합성세제 줄이기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들이 정기적인 정화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축산 오폐수를 줄이기 위해 운동은 축산업자에게 환경의식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최근 농민들의 환경문제 인식의 증대로 농약을 줄여서 쓰는 경향이 있으나, 정책적으로 유기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맑고 깨끗한 유구천 만들기』를 위해 주민 환경의식강화를 위해서는 부녀회, 새마을 지도회, 청년회, 노인회 등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환경관리 위원을 두고,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 및 환경교육활동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2) 정기적인 유구천 청소 및 정비 사업의 필요성

유구천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에도 주민들이 폐품 수집, 대청소, 농약 및 페비닐 수집을 하고 있지만, 주로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 하천에만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영역을 확대하여 유구천 본류의 퇴적된 토사에 하천정비, 쓰레기 수거 등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구천 쓰레기 정비 사업 시기는 장마 시작되기 이전, 장마 끝난 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은 하천 토사 정비 사업과 쓰레기 수거 사업은 읍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3) '보' 개선의 필요성

현재 유구천에 설치되어 있는 '시멘트 보'를 '돌로 된 보'로 바꿀 필요가 있다. '돌 보'로 개선하면 물고기가 상류까지 올라 갈 수 있고, 물의 흐름이 잘 될 수 있어서 유구천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모든 '시멘트 보'를 '돌 보'로 바꾸기에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4) 지역단위의 공동정화시설 설치

유구천 오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맑고 깨끗한 유구천 만들기』를 위해 생활 오폐수를 지역별 소규모 정화시설을 통해 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 마을에 설치하기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밀집된 부락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유구천을 활용한 소득 증대 방안

유구천 지역 인근 주민들의 소득감소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터전인 고향에 대한 애착을 상실하게 하고, 지역에 인구 유입을 막는 장애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유구천을 활용한 소득 증대 방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자연미'를 살린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신영2리는 이팝축제, 녹천리는 진달래 축제 및 박축제 등 자연과 어우어지는 축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산품을 살린 농가소득 증대가 필요하다. 투바우 한우, 포고버섯, 녹용, 유기농산물 등 우수한 품질을 개발하여 유구지역만의 특산품화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특성을 살린 농촌체험마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구계1리는 석수랜드와 연계한 농촌 체험마을, 유구마을 인근에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도 할 필요가 있다.